

국 어

문 1.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의 기본자인 ‘·, ㅡ,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 ② 모음 ‘ㅛ’는 초출자에, ‘ㅟ’는 재출자에 해당한다.
- ③ 자음 ‘ㅃ’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자음의 기본자인 ‘ㄱ, ㄴ, ㄷ, ㄱ,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문 2.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떡이 맛있다.’에서 ‘맛있다’는 [마딕따] 또는 [마싹따]로 발음한다.
- ② ‘오후부터 맑겠습니다.’에서 ‘맑겠습니다’는 [막켄쑤니다]로 발음한다.
- ③ ‘뒤에 오던 사람이 밝고 지나갔다.’에서 ‘밝고’는 [발:꼬]로 발음한다.
- ④ ‘이 차에는 짐을 싣지 마세요.’에서 ‘싣지’는 [실:치]로 발음한다.

문 3.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champion - 챔피언
- ② comedy - 코미디
- ③ stapler - 스테이플러
- ④ fighting - 화이팅

문 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형 만한 아우 없다.
- ② 학교에서만이라도 열심히 해라.
- ③ 고향을 떠난 아우가 3년 만에 돌아왔다.
- ④ 삼 일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문 5. 알기 쉬운 말로 바꾼 것 중 잘못된 것은?

- ① 제고(提高)하다 → 높이다
- ② 변제(辨濟)하다 → 갚다
- ③ 도래(到來)하다 → 도착하다
- ④ 목도(目睹)하다 → 눈감다

문 6. 다음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
- 대구(對句)가 이루어지게 한다.
- 대상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기 좋게 꾸민다고 본질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햇살은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곡식과 열매를 무르익게 해 주고, 빗물은 천진난만한 동생들처럼 매마른 땅을 두드리며 적셔 준다.
- ③ 잘 드는 칼은 편리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듯이, 발달된 과학은 편리하지만 때로는 인류를 해치는 원흉이 될 수 있다.
- ④ 꽃을 키우면 꽃을 보는 즐거움은 있지만, 꽃에 집착하는 괴로움이 더 크다.

문 7. ㉠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 뉴욕 센트럴 파크의 미국 자연사박물관 앞 계단에서 몇 명의 영국계 미국인들이 자못 심각한 토의를 하고 있었다. 미 대륙을 어떻게 하면 제2의 영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영국계 미국인들은 이미 미국의 동북부를 뉴잉글랜드, 즉 ‘새로운 영국’이라 이름 지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미 대륙의 영국화를 꿈꾸었다. 그들이 생각해 낸 계획은 참으로 기발하고도 지극히 영국적인 것이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영국의 새들을 몽땅 미국 땅에 가져다 풀어놓자는 계획이었다. ( ㉠ ) 미국은 자연스레 영국처럼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 ㉡ )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그들은 영국 본토에서 셰익스피어의 새들을 암수로 쌍쌍이 잡아 와 자연사박물관 계단에서 날려 보내곤 했다. 그 많은 새들은 낮은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 갔고, 극소수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 ㉢ ) 그들 중 유럽산 찌르레기는 마치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퍼져 나가, 불과 10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참새를 앞지르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새가 되었다.

- |       |     |     |
|-------|-----|-----|
| ㉠     | ㉡   | ㉢   |
| ① 그리고 | 그런데 | 그래서 |
| ② 그리고 | 그러면 | 그런데 |
| ③ 그러면 | 그러나 | 그리고 |
| ④ 그러면 | 그래서 | 그런데 |

문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테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어다 내어드리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중에서 -

- ① 특정 음보의 규칙적 반복으로 정형률을 형성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대화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정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④ 외면적 갈등 때문에 내면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문 9.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로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② 마음을 다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명을 알게 될 것이다.
- ③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 ④ 세계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 의식의 진보이다.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必)자형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결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깊숙이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가  
없으랴.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① 경건한 어조를 통하여 시적 대상을 송축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 ③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뒤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

문 1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 ②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 ③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문 12.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여야겠구나.
-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문 13.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 ②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 ③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 ④ 국가의 성립 요소 { 국토  
국민  
주권 }

문 14.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저울까?  
— 숫접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 ②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였다.  
—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 ③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 곰살궂다: 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
- ④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렸다.  
— 새살거리다: 셀셀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문 15.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한다.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② 언 밭에 오줌 누기
- ③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④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문 16. 다음 중 연사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이 아닌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간헐적 단식을 소개하러 온  
의사 김○○입니다.

우선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컴퓨터 화면에 사진을  
띄우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이 지금 이렇게 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여러분은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본 뒤) 각종 매체에 소개되기는 하지만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간단히  
말해 가끔씩 24시간 정도의 단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다이어트는 무작정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핵심  
이었지만, 간헐적 단식은 음식 섭취량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인 단식을 통해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4시간  
단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후 6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아침, 점심을 먹지 않은 채로 다시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단식을 하기  
때문에 단식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우리의 몸은 음식에서 나온 칼로리를  
소비하거나 저장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20  
시간을 배가 부른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음식에서 나온 칼로리를 저장하는 데 급급하고,  
그것을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이  
섭취한 각종 칼로리를 소비하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할 것  
입니다.

- ①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 ③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말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 ④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취하였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몽타주는 두 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  
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에이젠슈타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그는 두 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 했다.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 지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가  
구현하려 했던 몽타주의 개념이다.

- ①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 ②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 ③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 ④ ‘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문 18.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의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였다.

— 박지원, 「양반전」 중에서 —

- ①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②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 ③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 ④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라는 점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재화 그 자체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수요·공급에 있어서 봉급, 부가 급여, 직업의 사회적 명예, 근무 환경, 직장의 평판 등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이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① 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여러 사례를 근거로 삼아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 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되, 병든 아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뱃전에 나서 보니 티 없이 푸른 물은 월러링 팔녕 뒤둥구리 굵이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 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었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 「심청가」 중에서 —

- 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 ③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